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라고 하듯,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⑦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다. 동형이의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독자는 그 동형이의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독자는 동형이의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제약성을 고려한다.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예를 들어 '그가 사과를 깎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강해서 이때의 '사과'는 과일이라는 의미로 한정된다. 그에 비해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약해서 이때의 '사과'는 과일과 용서를 비는 행위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독자는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동형이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개념을 대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② 동형이의어의 의미 확정 과정에서 독자가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고빈도 단어가 언어 이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
- ④ 문장과 문맥에서 단어 의미가 결정되는 일반적 원리를 탐구하고 있다.

- ⑤ 동형이의어의 빨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다음 두 문장을 읽는 독자의 반응을 예측해 보자.

- 문장 A : "그는 눈을 다쳤다."
문장 B : "그는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럽다고 했다."

- ① 문장 A는 제약성이 강하므로 독자는 '눈'의 의미를 즉시 확정할 것이다.
- ② 문장 B는 제약성이 약하므로 독자는 다른 문장들을 더 읽어 볼 것이다.
- ③ 독자는 두 문장 모두에서 고빈도 단어인 '눈(目)'의 의미를 우선 떠올릴 것이다.
- ④ 독자는 문장 A에서 '눈(雪)'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것이다.
- ⑤ 독자는 문장 B에서 '눈(目)'과 '눈(雪)'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3. ⑦에 나타난 과정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동형이의어의 모든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 ② 고빈도 단어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문맥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 ③ 문장의 제약성과 관계없이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 ④ 단어의 사용 빈도보다는 의미의 다양성을 더 중시하는 과정이다.
- ⑤ 동형이의어의 표기상 특징을 파악하여 올바른 발음을 찾는 과정이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대기환경 보전법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⑦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편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빌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나)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률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률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⑦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가)의 세 가지 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시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법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자율적 조절 기능을 완전히 배제한다.
-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분쟁 해결에서 당사자들의 논의보다 법관의 판단을 더 중시한다.
- ④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 순서대로 등장하여 이전 모델을 완전히 대체하며 발전해 왔다.
- ⑤ 각 법 모델은 고유한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단독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홀수형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한 각 법 모델의 접근 방식을 예측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한 지역에서 대형 쇼핑몰 건설로 인해 기존 상권이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 시장 경쟁의 결과로 보아 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한다.
- ② 자유주의적 법 모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절차주의적 법 모델: 대형 업체의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 ③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상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절차주의적 법 모델: 이해 당사자 간 협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 ④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시장 자율에 맡기되 최소한의 안전망만 제공하고, 절차주의적 법 모델: 법관이 직접 분쟁을 해결한다.
- ⑤ 세 모델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대형 업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6. (나)에서 임대차 관계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조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률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
- ②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③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보증금 상한액 초과 시에는 최단 존속 기간 적용이 배제되어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 ⑤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갱신 요구권은 동일하게 인정된다.

7. ⑦에 나타난 악순환 구조와 이에 대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해결 방안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악순환은 법 규범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회 자율성이 침해되면서 시작되고, 절차주의적 모델은 법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이를 해결한다.
- ② 악순환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 부족해서 발생하고, 절차주의적 모델은 개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를 방지한다.
- ③ 악순환은 사회 각 영역의 문화적 규범이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면서 자율적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법 의존도가 높아지는 과정이고, 절차주의적 모델은 분쟁 해결 절차만 제공하여 자율성을 보존한다.
- ④ 악순환은 법의 수행 능력 한계로 인한 규범 구조의 균열에서 시작되고, 절차주의적 모델은 법의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이를 해결한다.
- ⑤ 악순환은 권력과 자본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하고, 절차주의적 모델은 이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8. (나)에서 계약과 법률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논리적 근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계약의 효율성이 법률의 형평성보다 우선되는 경우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 ②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과 계약 자유 원칙 사이의 형량을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 ③ 법률의 강행성이 계약의 임의성보다 항상 우위에 있으므로 법률이 우선된다.
- ④ 분쟁 발생 가능성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⑤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우선된다.

9.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가 구현하고 있는 법 모델의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특성만을 반영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위원회가 분쟁 해결책을 직접 제시한다.
-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보장하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 ④ 세 가지 법 모델의 특성을 모두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특성을 결합하여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대신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액상 유기 화합물을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⑦메틸사이클로헥세인(MCH)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⑧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

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이다. ⑨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 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 수로 나눈 값이며,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 극, 환원 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이 외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다.

*몰: 원자 또는 분자 6.02×10^{23} 개.

10.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은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생산보다 경제성이 떠어나다.
- ② 액화 수소 방식은 부피 문제는 해결하지만 극저온 유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 ③ MCH는 휘발유와 독성이 유사하므로 기존 석유 인프라보다 더 안전한 저장이 가능하다.
- ④ 암모니아의 높은 독성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⑤ 수소 연료전지에서 산화 극과 환원 극의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전기가 생산된다.

11. ⑦과 ⑧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⑦은 톨루엔에 수소 분자 세 개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화합물이다.
- ② ⑦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여 기체 수소보다 누출 위험이 낮다.
- ③ ⑧은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세 개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 ④ ⑧은 분자당 저장된 수소 원자의 개수가 물보다 많다.
- ⑤ ⑧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는 전기분해 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

홀수형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한 연구팀이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을 측정하던 중 다음과 같은 현상을 관찰했다. 정상 작동 중이던 연료전지에서 갑자기 전기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점검 결과 산화 극 쪽 수소 공급은 정상이었지만, 전해질 부분에 손상이 발견되어 수소 이온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환원 극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양의 물이 생성되고 있었다.

- ① 전해질 손상으로 인해 수소 이온이 도선을 통해 이동하려 하지만 전기 저항이 증가한다.
- ② 수소 이온 이동 장애로 환원 극에서 산소와의 결합이 줄어들어 물 생성량이 감소한다.
- ③ 산화 극에서의 수소 분해는 정상이므로 전자 생성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전해질 손상은 산화 극에서 환원 극으로의 산소 이동을 방해하여 성능을 저하시킨다.
- ⑤ 수소 공급이 정상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전해질 손상과 관계 없이 성능이 회복될 것이다.

13. 윗글의 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반응한 암모니아 2몰에 대해 생성되는 수소는 3몰이다.
- ② 전환율이 0.9라면 공급한 암모니아의 90%가 반응에 참여한다.
- ③ 부반응이 거의 없으므로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의 생성이 적다.
- ④ 암모니아 6몰이 완전히 반응하면 질소 기체 2몰과 수소 기체 6몰이 생성된다.
- ⑤ 전환율이 높을수록 공급한 암모니아 대비 생성되는 수소의 비율이 증가한다.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된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예컨대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이처럼 ⑦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 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점]

- ①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 ② 인포그는 정보를 변화시키는 주체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 ③ 경험주의에서 '있음'은 '상호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④ 칸트 윤리학은 인공물을 도덕적 주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⑤ 뉴턴의 공간 개념은 주체와 대상의 상호 의존성을 전제한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은 매일 AI 음성 비서와 대화하며 일정 관리, 음악 추천, 날씨 정보 등을 얻는다. 이 AI는 갑의 대화 패턴과 선호도를 학습하여 점점 더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을은 같은 AI 비서를 사용하지만 주로 언어 학습 목적으로 활용한다. 그는 AI와의 대화를 통해 발음을 교정받고 새로운 표현을 익힌다. 시간이 지나면서 AI는 을의 학습 수준에 맞춰 대화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 ① 갑과 을, 그리고 AI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인포그들 간의 상호 연결을 보여준다.
- ② AI가 갑에게는 일정 관리 정보를, 을에게는 언어 학습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서로 다른 추상화 층위를 적용한 결과이다.
- ③ 플로리디의 관점에서 AI는 갑과 을의 행위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 ④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AI는 갑과 을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 ⑤ 경험주의의 관점에서 AI의 '있음'은 갑과 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플로리디의 '있음' 개념과 동일하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추상화 층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체와 관계없이 대상의 모든 속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 ②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인식하게 한다.
- ③ 대상이 지닌 본질적 속성만을 추출하여 보편적 지식을 구성한다.
- ④ 주체가 임의로 만들어낸 허구적 정보를 실재로 착각하게 만든다.
- ⑤ 온라인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정보 처리 방식으로 기능한다.

17. <보기>는 플로리디와 학생이 나눈 가상의 대화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학생 :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추상화 층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예로 들어보죠. 같은 그림을 보고도 저는 '색채의 조화'에 주목했는데, 친구는 '작가의 감정 표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차이가 선생님 이론과 관련이 있나요?

플로리디 : 바로 그겁니다! 학생과 친구는 서로 다른 추상화 층위를 선택한 것이죠. 학생은 미학적 목적으로, 친구는 심리적 해석의 목적으로 그 그림에 접근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보가 인식된 것입니다. 이는 그림 자체가 달라진 것도,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었을 뿐이죠.

학생 :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⑦ 보시는군요.

- ① 동일한 대상도 관찰자에 따라 전혀 다른 실체가 된다고
- ② 객관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관적 해석일 뿐이라고
- ③ 대상에 대한 인식은 주체의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 ④ 개인의 관심사는 대상의 본질적 속성을 왜곡시킨다고
- ⑤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개인적 편견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 주지 않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 온 건가, 이 ⑦ 휴지 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때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 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댓 나보이는 그 꺼먼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뭐지요?"

"예, 예, 저어……."

"여긴 은행이오, 은행!"

"예,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홀수형

“글쎄, 은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이오?”

“저금을 조금 두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다.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 친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 쥐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백 원짜리 지폐 다섯 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어 멀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만치 한구석으로 가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씨 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빛나는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 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 할 경황도 없이.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하루에 이백 원 혹은 삼백 원 또 어떤 날은 오백 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엘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예, 기계 오늘은 좀…….”

청년은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었죠. 기래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썬 것을 내밀었다.

“아이,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쌌 가지고 온 종이지.”

친구는 내 손의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 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① 우물집한머니하루알고갔다. 모두잘갓다한다. 장손이장가갓다. 색씨는너머마을곰보영감딸이다. 구장네탄실이시집간다. 신랑은 읍의서기라더라. 앞집순이가어제저녁감자살마치마에가려들고왔더라. 순이는시집인감기라하더라. 니는빨리장기안들어야겠나.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②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가웃거렸다.

[B]

그 후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낫다.

그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묵고배 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그날부터 그 ③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 두었다. 그저 걸어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니무슨주변에고기목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쳐서 무그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니는빨리장기안들어야겠나.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 이범선, 표구된 휴지 -

1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B]는 서술자의 내면 독백을 통해 심리 변화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A]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B]는 시간의 경과를 명시하여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③ [A]는 외부 서술자의 객관적 진술로 인물을 평가하고, [B]는 내부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대상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있다.

④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의 과거사를 드러내고, [B]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며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⑤ [A]는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B]는 서술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표구된 휴지』는 소외된 계층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작가는 '휴지'에서 '국보'로 변모하는 편지의 가치 전환을 통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 속에 담긴 숭고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특히 문법이 틀린 편지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세련되지 못한 표현 이면에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염려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진정한 가치란 외형적 완벽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마음에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작품은 소외된 계층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과 그들의 성실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지식인인 서술자가 서민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계층 간 소통과 공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① 지게꾼 청년이 '생전 처음' 써 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듣고 놀라는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신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겠군.
- ② '돈조타. 그러나 너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조타한다'는 편지 내용은 투박하고 서툰 글솜씨 속에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진심이 오히려 더 절실히 드러남을 보여주는군.
- ③ '나'가 표구사 주인에게 편지를 '국보급'이라고 말한 것은 처음에는 농담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편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후의 진심어린 평가가 되었겠군.
- ④ '그림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한 편지가 화실의 '중심'이 된 것은 '나'가 예술 작품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삶의 진실을 그 편지에서 발견했음을 의미하는군.
- ⑤ '나'가 친구의 편지 수첩 행위를 보며 그를 '호사가'로 여겼다가 나중에 이해하게 된 것은 평범한 삶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겠군.

20. ①~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에서 발견된 편지는 그 출처 때문에 끝까지 진정한 예술 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남는다.
- ② ⑤의 문법적 오류와 어법상의 불완전함은 '나'가 편지의 내용에 처음으로 흥미를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 ③ ⑤은 처음에는 친구의 호기심에 동조하는 과장된 농담이었으나, 편지가 지닌 모성애와 삶의 진실을 발견한 후에는 '나'의 진심 어린 평가로 변모한다.
- ④ ⑦에서 발견된 편지가 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과정은 사회적 편견에 의해 가려진 진정한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남을 보여준다.
- ⑤ ⑤의 투박한 표현들이 ⑤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되는 과정은 편지의 거친 문장과 맞춤법 오류가 오히려 그 내용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21. 편지를 인용한 서술 방식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도 '나'가 주목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 '나'의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② 처음에는 웃음을 자아냈던 내용이 나중에는 감동을 주는 것으로 변화하여 독자로 하여금 '나'의 정서 변화에 공감하게 한다.
- ③ 편지 내용을 분절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편지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서술의 긴장감을 유발한다.
- ④ 동일한 편지 내용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제시됨으로써 고정된 텍스트도 수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⑤ 편지의 반복적 인용을 통해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나'의 변화하는 시선을 대조적으로 부각한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화롱담 깊은 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롱더러 말하기를
[A]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말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옳게 여겨 전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전년산 바라보니
파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중략)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⑦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홀수형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B]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불들고 만류하되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라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웃다 하여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제
⑤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홍정유, 「동유가」-

*봉래의 후약: 봉래산(신선이 산다는 전설의 산)에 있다는 불로초

(나)

— 7월 3일(금)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松田)으로 오다. 송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세별장(貴別莊) 하나 없을까.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숙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大書)하였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다.

고저(庫低)가 곳간 바닥 그대론 듯이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히었다. 해풍에 자란 솔들이 라 통만 굽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듯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쟁쟁 소리가 날 듯 양명(陽明)하다.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⑤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떡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뿐—얀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 서 나부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여 들어야 코를 씨른다. ⑥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홀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이 꽉—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쇠— 쇠— 하고 흘어지는 것 같다. 길 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솔밭, 들판 하나 열리지 않은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정물(情物)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⑦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이태준, 「해촌 일지」-

고저(庫低)가 곳간 바닥 그대론 듯이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히었다. 해풍에 자란 솔들이 라 통만 굽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들판이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쟁쟁 소리가 날 들향명(陽明)하다.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⑤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떡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뿐—얀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 서 나부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여 들어야 코를 씨른다. ⑥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홀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이 꽉—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쇠— 쇠— 하고 흘어지는 것 같다. 길 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솔밭, 들판 하나 열리지 않은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정물(情物)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⑦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모새: 가늘고 고운 모래.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여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나)는 주관적 감상을 중심으로 여행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가)는 과거 시제를 활용하여 체험을 객관화하고 있으며, (나)는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체험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여행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나)는 내적 독백을 통해 여행의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④ (가)는 여러 공간을 이동하며 견문을 넓히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는 한 공간에 머물며 사색을 깊이하고 있다.

⑤ (가)는 자연 경관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감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자연 현상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절제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3.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시각적 이미지와 역동적 움직임을 결합하여 자연물의 생동성을 형상화하고, 전설을 통해 자연물 간의 관계에 상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② [B]는 구체적인 일시와 날씨를 제시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타인의 만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C]에서는 지명의 어원적 의미를 활용하여 공간의 특성을 설명하고, 솔과 모래를 각각 다른 계절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④ [D]는 주관적 평가와 비유적 표현을 결합하여 공간에 대한 심미적 인식을 드러내고, 우연히 발견한 철봉에서 즉흥적 행위를 하며 활력을 표현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⑤ [E]에서는 달빛이 비치는 다양한 공간을 열거하며 자유를 확장시키고,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까지 상상하며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나아가는 과정이 나타난다.

24. ①~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①: 화자가 만물초를 유람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② ②: 화자가 금강산과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나타나 있다.

③ ③: 글쓴이가 송전 길의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는 감탄과 찬미가 표현되어 있다.

④ ④: 글쓴이가 바다의 변화무쌍함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드러나 있다.

⑤ ⑤: 글쓴이가 달의 무한성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자각하며 느끼는 경외감이 나타나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기행 문학은 여행 체험을 기록한 문학으로, 시대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해 왔다.

조선 시대 기행 가사는 유교적 교양을 지닌 사대부들이 명승지를 유람하며 그 체험을 4음보의 율격에 담아 기록한 것이다. 여정의 구체적 기록을 중시하여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상이 조화를 이루며, 전설이나 설화를 수용하여 공간에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신선 사상 등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타인의 경험과 조언을 존중하는 집단적 가치관이 나타난다.

한편 근대 이후의 기행 수필은 개인의 내면과 정서를 중시하며, 여행지에서의 순간적 인상과 사색을 자유롭게 기록한다. 서구의 예술 사조나 지식을 수용하여 풍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성찰하는 근대적 자유가 나타난다. 개인의 주체적 체험을 중시하는 근대적 개인주의가 반영되어 있으며, 일상적 언어로 감각적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① (가)의 화자가 화룡담 전설을 소개하는 것은 공간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적 방식이며, (나)의 글쓴이가 철봉을 '초현실파'에 비유하는 것은 서구 예술 수용의 근대적 해석이다.

② (가)의 화자가 '봉래의 후약'을 언급하는 것은 신선 사상의 반영이며, (나)의 글쓴이가 '무인고도'를 상상하는 것은 우주적 관점의 근대적 자유를 보여준다.

③ (가)의 화자가 만물초 유림을 포기하는 것은 자연을 무시한 인간 중심적 태도이며, (나)의 글쓴이가 밤에 산책하는 것은 집단주의적 사고의 반영이다.

④ (가)의 화자가 '만 이친 봉'을 기록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중시의 특징이며, (나)의 글쓴이가 인간을 '미물처럼 조그마한'이라 표현하는 것은 우주적 성찰을 보여준다.

⑤ (가)의 화자가 "들으니 그럴듯하고"라며 타인의 만류를 수용하는 것은 집단적 가치관을 보여주며, (나)의 글쓴이가 "홀고 의적심이 추우리만치"에도 홀로 나서는 것은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홀수형

26.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가 자연을 인식하는 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도전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나)의 글쓴이는 자연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
- ② (가)의 화자는 자연의 신비로운 면모에 경이로움을 느끼면서도 현실적 조건에 순응하는 반면, (나)의 글쓴이는 자연의 초월적 속성에 매혹되면서도 인간적 한계를 자각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자연을 집단적 체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나)의 글쓴이는 자연을 개인적 성찰의 맥락으로 인식한다.
- ④ (가)의 화자는 자연 경관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겸허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나)의 글쓴이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추구하며 친밀한 교감을 시도한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을 유람의 대상으로 객관적 기록에 집중하는 반면, (나)의 글쓴이는 자연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어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진옥은 월국에 승전한 일을 황제에게 아뢰고 돌아오다 문득 폭풍을 만나 외딴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왈
"사십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리에 잃었나이다."
진옥이 왈
"그 자식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노인이 답왈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화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더니 이제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하거늘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불들고 성통곡 왈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하니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성통곡하고 기절하여 엎어지니 진옥이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후사를 날낱이 설화하더라.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옥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일개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김 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하며 급히 불러 왈

① "수부 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하거늘 원수가 왈

②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

원수가 부친께 고하여 왈

"어찌 하오리까?"

하니 그 부친이 왈

"용왕이 청하시니 어찌 거역하리오. 아모쪼록 가리라."

하시니 원수가 동자를 따라 수부에 이르니 일월이 명랑하고 천지가 활연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의가 거룩하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백옥상에 좌정한 후 왈

"원수의 존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오늘에서야 처음 보는도다."

원수가 왈

"저는 인간 사람이라. 이다지 하시니 감사무지로소이다."

한참이나 자리를 즐기더니 한 신하가 아뢰어 왈

"동곡 병사가 지경을 범하오니 왕은 급히 막으소서."

하였다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돌아보아 왈

③ "과인이 김 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곡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 원수는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만일 병사를 소멸하면 수부의 주인이 될 것이요, 다시 공을 표창하리다."

하니 원수가 왈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보겠나이다."

용왕이 희열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곡 용왕과 진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원수 사온하고 물려 나오니 군세가 엄숙하고 엄위가 진동하는지라.

각설, 이때 월국 병사가 회환하다가 일야 폭풍에 원수 탄 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신이 황황하여 두루 찾았으나 종적을 모르는지라.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이회길 '김 원수 김진옥을 해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워 하시나 원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한편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이때 유 송상이 이 말을 듣고 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첩과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온을 두 손 모아 기도하더라. ④ 이에 앞서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혼인하매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황상 모해함 뜻을 두고 그육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표풍하여 사생 모름을 듣고 희열하여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쭈오되

"갑자년 난리에 김진옥의 아비 김치도 오랑캐와 내옹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이제 진옥이 월국을 치는 채하다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비와 동심합력하여 조

선국을 해코자 하오니 그 처자를 어찌 살려 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려할 듯한지라 즉시 유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중략)

각설, 이때 원수 수부에서 용궁 병사를 거느리고 일자 장사진을 쳐 제장을 호령하시니 선봉 장신갑이 아뢰어 왈 "동곡 용왕은 유수진을 쳤거늘 원수께서는 어찌 일자 장사진을 쳤나이까?"

원수 웃으며 왈

④"오행에도 상극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

하며 칭찬하더라.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곡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곡 용왕이 분노하여 비룡마를 타고 청룡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부 명장이 경실색하더라.

이때 진곡 군사가 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희열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 서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작자 미상, 「김진옥전」-

27.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은 자신의 생사를 알지 못해 재회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 ② 진옥은 용왕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다가 부친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 ③ 용왕은 진옥을 처음부터 동곡 용왕과의 전투에 활용할 목적으로 불렀다.
- ④ 우양 공주는 진옥이 부마되기를 피한 것을 못마땅해하며 원한을 품었다.
- ⑤ 진옥은 동곡 용왕과의 진법에 상극이 되는 진법으로 맞서려는 계책을 세웠다.

28. ⑦~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⑦은 용왕의 명을 전달하는 사자로서 인간인 진옥을 초월적 공간인 수부로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 ⑧은 진옥이 자신과 용왕의 존재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두 세계의 교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준다.
- ⑨은 용왕이 자신의 위기를 해결할 대가로 진옥에게 수부의 지배권이라는 파격적 보상을 약속하는 것을 보여준다.
- ⑩은 진옥이 부마 되기를 거부한 행위가 우양 공주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모함의 빌미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⑪은 인간계에서 습득한 병법 지식이 초월계에서는 통하지 않아 진옥이 용궁의 신비한 힘에 의존하게 됨을 나타낸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소설에서 '환상적 타계(他界) 체험'은 주인공이 현실적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돌파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타계는 현실계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공간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현실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월적 힘을 부여하는 공간이다. 특히 영웅소설에서 용궁으로 대표되는 수중 타계는 주인공에게 군사적 조력을 제공하거나 신이한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현실계로 복귀한 후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통과의례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타계 체험이 항상 즉각적인 현실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인공의 부재로 인한 또 다른 위기가 현실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 ① 진옥이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된 것은 타계 진입을 위한 필연적 계기로서, 현실적 난관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되는 서사적 장치로 볼 수 있겠군.
- ② 용궁이 '일월이 명랑하고 천지가 활연'한 이상적 공간으로 묘사된 것은 현실계와 구별되는 타계의 초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그곳에서의 체험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암시하는군.
- ③ 진옥이 동곡 용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동해군'에 봉해진 것은 타계에서의 성공이 곧 현실계에서의 지위 상승으로 직결됨을 보여 주는군.
- ④ 진옥의 용궁 체험 중 현실계에서 우양 공주의 모함이 진행되는 것은 타계 체험이 현실 문제의 즉각적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드러내는군.
- ⑤ 진옥이 '풍운조화'를 부려 동곡 용왕을 제압한 것은 진옥이 발휘한 초월적 능력이 타계의 질서 회복에 기여하는 영웅적 면모를 보여 주는군.

홀수형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시련은 크게 '외적 시련'과 '내적 시련'으로 구분된다. 외적 시련은 적대 세력과의 물리적 대결을 의미하며, 내적 시련은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서 겪는 정신적 갈등을 의미한다. 특히 주인공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음모와 모함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게 한다. 이때 주인공은 초월적 질서와 현실적 질서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충(忠)'과 '효(孝)'라는 유포적 덕목은 시련을 극복하는 내적 동력이자 정당성의 근거로 작용한다.

- ① 진옥이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라며 용궁행을 주저한 것은 현실적 질서와 초월적 질서 사이에서 겪는 내적 시련으로 볼 수 있다.
- ② 진옥이 동곡 용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외적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초월계에서도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우양 공주가 진옥 부자를 역적으로 모함한 것은 진옥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음모로, 주인공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시련에 해당한다.
- ④ 진옥이 용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한 것은 충과 효의 덕목이 초월적 질서 앞에서 무력화되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진옥이 수부에서 동해군으로 봉해진 것은 초월적 질서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 인간 영웅에서 신적 존재로 재정립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빈집에는 작지만 문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깐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脈) 덜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⑦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털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⑧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몰다.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 받는 검은 둥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⑨ 아 하늘의 기둥들!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나)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⑩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별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⑪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⑫ 깊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홀홀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볕과 바람과 별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

-신석정, 「역사」-

3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화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대상과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동일한 시어를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집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짧은 호흡의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급박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나)는 대조적 개념어의 병치를 통해 생명의 역설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2. ①~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유한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긍정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⑤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 목격하는 생명력의 절정과 대비되는 쇠락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 ③ ④은 살구나무를 형이상학적 존재로 격상시켜 화자가 발견한 생명의 숭고함을 표현한다.
- ④ ⑤은 달래꽃의 생명력이 개체적 한계를 넘어 영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화자의 신념을 드러낸다.
- ⑤ ④은 달래꽃의 생명력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사랑에 대한 화자의 체념을 담고 있다.

33. ①과 ②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은 달래꽃을 둘러싼 자연 현상들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②는 달래꽃이 극복해 온 시련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①은 달래꽃이 지닌 외적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②는 달래꽃에 투영된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나열하고 있다.
- ③ ①은 달래꽃을 위협하는 외부적 요인들을, ②는 달래꽃의 내재적 속성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①은 화자가 달래꽃에서 발견한 우연적 속성들을, ②는 화자가 달래꽃에 부여한 필연적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⑤ ①은 달래꽃을 매개로 한 화자의 현실 인식을, ②는 달래꽃을 통해 도달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현대시에서 '꽃'은 생명의 아름다움과 유한성을 동시에 환기하는 양가적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황동규는 살구꽃의 찰나적 아름다움을 통해 순간과 영원의 변증법적 관계를 탐구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는 현재의 충만함과 미래의 부재 사이를 오가며, 결국 '한때'의 의미를 재발견한다. 반면 신석정은 달래꽃의 미약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불멸의 생명력을 발견한다. 개체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생명의 연속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적 섭리에 대한 믿음이 사랑의 당위성으로 이어진다.

① (가)에서 화자가 '차를 멈추고 뒤돌아'보는 행위는 시간의 불가역성을 거스르려는 의지적 행위로, 순간을 영원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낡은 귀신들'은 생명력을 상실한 미래의 꽃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의 '황홀'이 지닌 한시성을 상기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③ (나)에서 '하잘것없는' 달래꽃이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역설은 개체적 차원을 넘어선 생명의 영속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보여 준다.

④ (나)에서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진술은 달래꽃의 유한성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결국 덧없음을 자각하게 하는 당위로 제시된다.

⑤ (가)의 '하늘의 기둥들'과 (나)의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마음은 모두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차원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제시된다.